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what was lost» (Luke 19:10)

사역 소식: 2025년 2월

살롬! 사랑하는 친구와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자원봉사 팀장인 이갈이 들려준 아비브 센터 방문객 중 한 명인 아르트움*의 사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어요”

몇 달 전, 아비브 센터에서 쓰는 급식소 용품을 구입하는 슈퍼마켓 근처에서 아르트움*을 처음 만났습니다. 아르트움*은 슈퍼마켓 밖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처음 그에게 다가갔을 때, 제가 현금을 줄 것이라 기대하며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돈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다면 원하는 것을 사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오늘 저녁에 아비브 센터에 오시면 돼요. 따뜻한 식사, 시원한 음료, 달콤한 후식도 있을 거예요."

아르트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 돈이 필요해요."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마약에 중독되어 왔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갈지 정확히 알죠. 그래서 현금은 못 드리지만, 기꺼이 음식은 사드릴게요."

그는 내 대답에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은 필요 없어요." 중얼거리더군요.

일주일 후,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즉시 저를 알아보았고 저는 그에게 전에 했던 말을 반복했습니다. "음식은 사드릴 수 있지만 돈은 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 안 돼요?" 아르트움*이 답답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돈이 어디로 갈지 알기 때문이죠. 저는 더 가치 있는 것, 즉 돈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뭐죠?"

"주 예수님께 의지하면 중독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르트움은 망설였습니다. "저는 아르메니아에서 왔어요."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분의 첫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당신의 출신에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께 향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돕고 싶어하십니다."

아르트옴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돈을 주지 않는지 이제 이해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먹을 것 좀 사주실 수 있나요?"

그날부터 저는 쇼핑을 하거나 아비브 센터에서 아르트옴을 볼 때마다 하나님, 죄, 구원,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재활 센터로 초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아르트옴은 자신의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홀아비였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술에 중독되었습니다. 61세의 그는 생활 방식 때문에 자녀들에게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안타깝게도 노숙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비극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던 3주 전, 아르트옴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노숙하기에는 너무 추워요. 정말로 재활 센터에 가서 주시는 것을 받고 싶어요."

저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예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의지하면, 당신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아르트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대화할 때마다 저는 몸에 따뜻함을 느낍니다. 대화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아비브 센터에서의 봉사가 끝난 후, 저희는 함께 네타냐에 있는 재활 센터로 갔습니다.

아르트옴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더 많은 소식과 기도 제목:

더 많은 소식과 기도 제목개인 사정으로 인해 여성 센터의 타치아나 매니저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직원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팀에 적임자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재활원에서 암으로 투병 중인 발레리는 약간 좋아지고 있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사들은 아직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빌헬름이 꾸준히 발레리를 방문하며 돕고 있습니다.

저희 팀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주님께서 저희에게 건강을 복돋워 주시고, 주님의 추수 밭에서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프로젝트를 계속 성장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사역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기도 제목을 자유롭게 나눠 주세요!

주님의 종 된,

도브, 올라 비카스, 그리고 아비브 미니스트리 팀

www.avivministry.com

dovbikas@gmail.com

